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일어나 아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이었습니다.

“에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꼬마는 아빠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기쁘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나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나?”

“그렇담 피를 뽑아도 죽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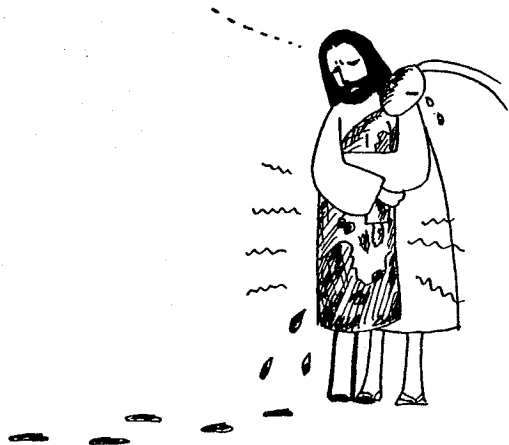
“에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던 말이나?”

“네,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 집은 돈으로 짓지만 가정은 사랑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

\*\*\*\*\*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요일 4:10)

교회목표	'99교회표야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교회생활지침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b>갈보리 교회</b>	누가 10:37
	Calvary Presbyterian Church	*자원함 -성경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1권1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11월 7 일
☎262-3717/021-292-1639. ☎229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백사님(대림) 주께**

저의 병을 신유의 은사로만 치유 받아야 합니까?

아) 어려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동안 받던 병원의 치료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주시던 중 기도원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A)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영적인 지도자들의 기도를 받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약 5:14-15).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학으로 치유하는 의사들이 있고, 상담으로 영혼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치유의 은사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상담을 기피할 이유가 없고 또 약을 쓰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1세기 때의 약입니다. 약도 주님의 이름으로써야 합니다.

기도도 하고 의학적인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약을 쓰면 믿음에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는데 요구하면 현금을 안 낼 수 없는 심적,육적 상황하이기 때문에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병약한 사람에게 현금을 요구한다면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방법을 병행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병원 치료와 약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속히 완쾌되기를 기도합니다.

# 주 일 예 배

오후 1:30

영 광 송  
Gloria

"Calvary"  
1절:예배반주.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53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6 (시 63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91 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서백화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0:24- 33

특 송  
Praising

'나 어느날 꿈속을'

신경화 집사  
(광림교회)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설 교  
Sermon

'세상앞에 당당하라'

김성국 목사

설교후 기도  
Prayer

찬 송  
Hymn

360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 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tea time
7	서백화	이지훈	이지훈	여선교회
14	이지훈	송정설	송정설	남선교회
21	밤성주	한건한	한건	청년부
28	최윤호	서백화	서백화	여선교회

'99년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실천사항>

- \*신 앙: 기초성경공부이수
-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 \*생 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등록규정>

-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교 회 소 식

- 매월 정기심방일정서를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주간부터(18일)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를 통합하여 목요일예배로 드립니다
  - \*명칭: 목요일예배
  - \*성격: 성경공부와 기도
  - \*시간: 저녁 7:30
  - \*장소: 교회본당
- 성경공부를 위한 file을 성경공부시간마다 지참하여 주십시오.
- 교회이름 변경광고가 교민지를 통해 홍보되고 있습니다.
  - <코리아타운>: 11월 2일자. <생활정보>: 11월 9일자
- 감사합니다.
  - \*신경화 집사(광림교회): 오늘 특송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은 늙지 않는데.."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시편중의 시편'이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 같은 자기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양은 늙지 않는 동물이다. 강한 동물만이 누워 잠을 잔다. 약한 노루, 사슴, 토끼들은 약하기에 항상 펴 준비를 한 채 웅크린 채 잔다.

왜 양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은 누이신다고 했나? 그것은 자신은 양과 같아서 한시도 편히 쉴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에 누워서 잔다고 고백을 한 것이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 분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 기독공보 중에서 -